

오행(五行) 중의 상승(相乘), 상모(相侮) 이론에 대한 고찰과 약국에서의 응용

조기성*

고양시약사회, 한국약국

(2017년 4월 26일 접수 · 2017년 5월 6일 수정 · 2017년 5월 24일 승인)

A Study on Over-Acting (相乘) and Counter-Acting (相侮) in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五行) and Its Application in Community Pharmacy

Giseong Cho*

Han Kook Pharmacy, Goyang-si, Gyeonggi-do 10464, Republic of Korea

(Received April 26, 2017 · Revised May 6, 2017 · Accepted May 24, 2017)

ABSTRACT

Keywords:

Oriental medicine

Alternative medicine

Chronic disease

상생(相生, inter promoting)

상극(相剋, inter acting)

상승(相乘, over acting)

상모(相侮, counter acting)

오행(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While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the population is getting longer, the desire to achieve a healthy lifestyle is getting stronger.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life such as bad eating habits, stress, cardiovascular diseases caused by environmental factors, various autoimmune diseases, cancer diseases and arthritis Patients with various diseases to drop are in an increasing trend. Of thes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9~65% of them have experience using CAM, and more than 70% of cancer patients in Korea are known to have experience using oriental medicine and alternative medicine. This suggests that Western medicine has some limitations to meet the high quality health needs of modern people, especially the elderly, and it seems that the interest in Oriental medicine and alternative medicine is reflected as a way to effectively supplement Western medicine. In oriental medicine, the biochemical reaction or physical movement of the human body has a whole view that it acts in an organically organized state by the basic principle of the Yin and Yang Five Rows, Recognize as inductive from an anatomical point of view. From this difference, Oriental medicine has the drawback of not recognizing the partial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human body, but it can explain many things that modern physiology does not know about systemic biochemical reactions and physical actions. However, the global trend is that western medicine is regarded as orthodox medicine, and in Korea, there is a lack of complementary awareness of two medical theories.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riental medicine, Yin and Yang theory (yin and yang theories),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syncretism, ascension, And to suggest effective complementary treatment methods for various kinds of chronic diseases.

서론

면,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악성인자로 인한 심혈관계질환, 각종 자가면역질환, 암질환, 관절염 등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만성질환 환자 중 외국의 경우에도 9~65%가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암환자의 70% 이상이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히 노령층에서 질 높은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양의학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에 높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가려내는 서양의학에 비하여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균형에 따른 건강상태를 중시하여 생명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체의 생화학적 반응이나 물리적 운동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는 기본원리에 의하여 유기적(有機的)으로 정돈된 상태로 작용된다고 보는 전체관(全體觀)이 있으나 서양의학에서는 생명활동이 이뤄지는 과정을 해부학적 방법을 기초로 귀납적(歸納的)으로 인식한다. 이런 차이에서 동양의학은 인체의 부분적 구조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닌 반면, 전신적 생화학 반응과 물리적 작용에 대해 현대생리학이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은 서양의학체계를 정통의학으로 인정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학 및 동양의학의 상호보완적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양의학의 기본사상인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중 상생(相生, inter promoting)과 상극(相剋, inter acting), 상승(相乘, over acting), 상모(相侮, counter acting) 관계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깊이 사유함으로써 기존의 서양의학적 관점과 통합하여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 보완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서적이거나 한의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던 상승, 상모의 이론을 고찰해봄으로서 동양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들에게 임상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만성질환 환자를 이해하고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황제내경(皇帝內經)에는 오행(五行)이론을 의술에 응용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운기학설(運氣學說)에 따르면

상생, 상극관계로서 인체의 각 조직간 조화로운 생리기능을 설명하고, 상승, 상모관계로써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병리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간-심-비-폐-신 등 오장을 중심으로 한 ‘장상학(臟象學)’을 내경에서 완전한 이론체계로 수립하여 인체 질병의 발생원인 및 치료법을 제시한 것인 바, 이를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조적이고 대체적 요법으로서 접근시킬 수 있다. 그중 상생, 상극 관계는 약국에서 질병치료의 기준으로뿐만 아니라 한의학, 침구학, 미용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원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승, 상모 이론은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활용된 예가 찾아보기 드물다. 이에 저자는 관심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편으로 상승, 상모 이론을 증상에 따라 대비하였으며 결과로서 치료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대의학에서 다빈도 질환으로 중시되는 부신저하증, 당뇨병, 고혈압, 위장질환, 간질환과 연계하여 사유하여 한방처방과 건강기능식품류를 분류, 제안하였다.

해석 및 고찰

1. 오행(五行)의 개념과 발생

동양철학에 의하면 우주(宇宙)의 모든 만물은 오행(五行)의 변화에 의하여 상대적 평형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오행은 음양(陰陽)과 함께 동양철학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데, 동양의학은 인체조직을 소우주(小宇宙)라 전제하고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을 인체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오래된 한의학 이론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의학적 해석방법으로 음양오행설을 차용, 적용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음양오행은 처음부터 의학적 이론체계 수립을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옛사람들은 당시의 과학수준이 미비하였으므로 우주와 유사한 유기체라고 여긴 인체기관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마치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이치(理致)와 동일할 것으로 사유하였다. 이렇듯 동양의학의 자연관과 인체의 생리,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치료법과 약물을 찾아내는 모든 방법론에 음양오행론이 자리잡혀왔다. 동양의학에서 인체안의 음양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사실은 곧 질병발생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음, 양의 과다(過多)나 또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조화를 이루게 하는 치료학이 곧 한의학이다. 체질을 비롯하여 증세와 약의 성질을 모두 음양으로 구별하여 음양의 균형에 맞도록 치료를 행한다. 즉 양(陽)적인 질병은 음(陰)적인 약이나 치료법으로, 음(陰)적인

질병은 양(陽)적인 약이나 치료법으로 상호균형을 맞추는 이치이다.

2. 오행(五行)의 관계

오행론은 음양변화의 양상으로서 “五”는 木-火-土-金-水라는 요소에 “行”은 운행을 뜻하며 모든 사물이 이 다섯 가지 성질의 운동변화에 의해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한다. 이 조화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상생과 상극으로 끊임없이 轉化하고 반드시 制約이 있어야 生化이 멈추지 않고 평형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오행을 이해함에 중요한 것은 오행의 상생(相生), 상극(相剋), 상승(相乘), 상모(相侮)의 상호관계이며 이는 생극(生剋)이라는 정상적 관계와 승모(乘侮)라는 비정상적 관계로 나누어진다. 생극은 생(生: 육성하고 보호하고 원조)과, 극(剋: 이긴다. 누른다, 지배한다)으로 구분하여 오행의 사이에서 서로 조장(助長)하고 협력(協力)하는 상생(上生)의 관계, 서로 억제하고 저지하는 상극(相剋)의 관계가 이뤄진다.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은 함께 존재하며 어느 한쪽만 있으면 모두가 망한다. 승모(乘侮)는 상극(相剋)관계에서 오행의 어느 하나가 편승(偏勝: 음과 양 가운데에서 어느 한 쪽이 왕성해진 것)되거나 편쇠(偏衰: 음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이 쇠약해진 것)되어 그들 사이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상승(相乘), 상모(相侮)관계를 뜻한다.

3. 오행(五行)의 생극(生剋)관계

3.1 오행의 상생(相生)관계

오행의 상생은 목화토금수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자생, 조장(助長)하고 촉진하는 관계이며 이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모자관계(母子關係)와 같이 이해한다(Table 1, Fig. 1).

3.2 오행의 상극(相剋)관계

상극은 서로 극(剋)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씩 건너 뛰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Table 1, Fig. 1). 하지만 과도한 부분을 억제(抑制), 제약(制約)하는 일종의 제어작용도 한다. 즉, 극(剋)은 해치는 것(殺)이 아니라 剋하는 대상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물을 튼튼하게 하기도 한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기본법칙으로, 사물 상호간에 상생, 상극관계가 있음으로 자연계는 생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인체도 생리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관계가 넘치거나 모자라 조화되지 않으면 평형이 깨져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오행의 각 행은 상생작용을 하면서 상극작용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상생 중에

Table 1. Table of inter-promoting and inter-acting in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상생(相生)	상극(相剋)
목생화(木生火)	목극토(木剋土)
화생토(火生土)	토극수(土剋水)
토생금(土生金)	수극화(水剋火)
금생수(金生水)	화극금(火剋金)
수생목(水生木)	금극목(金剋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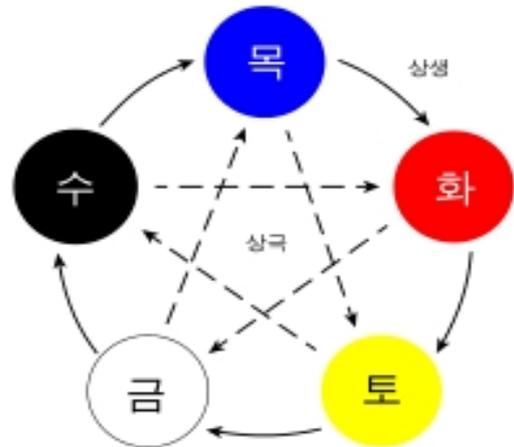


Fig. 1. Conceptual diagram for inter-promoting and inter-acting (출처: 위키피디아)

는 상극이 포함되어 있고, 상극 중에는 상생이 포함되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상호보완적인 자연의 순환원리이며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이다. 생(生)한다 하여 모두 좋은 것도 아니며, 극(剋)한다 해서 모두 나쁜 것도 아니다. 또한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적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서로 견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4. 오행(五行)의 승모(乘侮) 관계

여기서 상승(相乘)의 승(乘)은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습격한다는 뜻이며, 상모(相侮)의 모(侮)는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즉 오행의 상승은 상극관계에서 제약하는 자가 제약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상적으로 정상보다 더 세계 제약하는 상호관계를 말하며, 상모는 오행의 상극관계에서 제약을 받던 자가 제약하던 자에 대하여 반대로 제약하는 관계를 말한다. 비정상적 관계이다.

4.1 오행의 상승(上乘)관계

상승관계는 극(剋)을 당하는 일행에 극(剋)을 더욱 더 가

하는 것이다. 즉, 극하는 힘이 강하여 상극하는 상대를 지나치게 억제한다. 극(剋)의 가중(加重), 과극(過剋), 상생(相生)의 반대의미이기도 하다. 이 관계는 태과와 불급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① 태과(太過): 극을 하는 쪽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여 상극하는 상태를 억제하여 일어나는 현상

- 목승토(木乘土): 목이 지나치게 강해 토가 더욱 더 위축되어 약해진 상태이다. 예를 들면, 땅은 좁은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목이 토를 해치는 것이다.
- 화승금(火乘金): 불이 너무 강하면 쇠를 연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녹여 버린다.
- 토승수(土乘水): 흙이 너무 많고 물이 없다면 사막이 되어 생명이 살 수 없다.
- 금승목(金乘木): 쇠로 나무의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나무가 살아남지 못한다.
- 수승화(水乘火): 물이 많은데 불기운이 부족하면 물이 얼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② 불급(不及): 극을 받는 쪽의 힘이 너무 약해 억제과정을 이기지 못함이다.

- 토허목승(土虛木乘), 금허화승(金虛火乘), 수허토승(水虛土乘), 목허금승(木虛金乘), 화허수승(火虛水乘)

(예)토허목승(土虛木乘): 목극토가 정상이지만 토자신이 너무 약하여 상대적으로 목의 힘이 더욱 강해져서 토가 더욱 더 약해지는 상태. 한 쪽이 허약하여 相剋을 받는 과정에서 억제과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4.2 오행의 상모(相侮)관계

오행간에 극을 당할 상대가 거꾸로 극을 가하는 것(갈봄)으로 어떤 일행이 지나치게 강하여 본래의 극아(剋我)하는 일행을 역으로 갈봄게 되는 것으로 반모, 반극(反剋)이라고도 하며 하극상이다. 상극(相剋)의 반대(反對)의미이기도 하다.

- 토모목(土侮木): 돌이나 단단한 땅은 나무가 뚫지 못한다.
- 화모수(火侮水): 사막, 물을 말림

- 수모토(水侮土): 흙이 물에 씻겨 내려감, 장마
- 수모금(木侮金): 쇠가 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쇠끝이 무디어짐, 나무가 한 아름으로 큰데 작은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격이다.
- 금모화(金侮火): 쇠를 성냥불로 녹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5. 오행론(五行論)의 인체 적용

인체(人體)의 오행은 오장(五臟)이다. 오행론은 한의학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에 내재하는 서로 발생시키며 조장시키는 것과, 서로 억제하고 제약하는 복잡한 연계들을 설명하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행론은 몸에서 각 장기계통 및 그 기능들이 서로 제약하거나 서로 조장하는 연관관계와 질병의 발생발전 및 경과에서 그들 사이의 상호연계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5.1 오행배당표에 따른 인체의 오행분류

동양의학에서 오장(五臟)이 오행(五行)에 배속됨에 따라 인체는 필연적으로 인체 밖의 외부환경인 자연계와 관련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체의 생리변화와 자연환경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각 장부조직의 속성과 내재하는 관계를 오행분류표를 통해 설명하고오행귀속은 다음과 같다 (Table 2).

5.2 승모(乘侮)관계의 질병에 대한 고찰

본장(本臟)에 병이 발생하면 치료하지만 병이 오래되면 상승되어 자장(子臟)으로 병이 옮겨가므로 자장을 보(補)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승관계의 치료이다. 또 모장(母臟)이 본장을 극하는 것이 정상 생리관계이나 본장의 병이 모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상모관계이다. 상승과 상모는 서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Fig. 2, Fig. 3).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인체/오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육장(六臟)	간(肝)	심(心)/心包	비(脾)	폐(肺)	신(腎)
육부(六腑)	담(膽)	소장(小腸)/三焦	위(胃)	대장(大腸)	방광(膀胱)
오구(五竅)	눈[目,眼]	혀[舌]	입[口]	코[鼻]	귀[耳]
오주(五主)	힘줄[筋]	피(血)	기육(肌肉)	피모(皮毛)	골수(骨髓)
오지(五志)	노(怒)	희(喜)	사(思)	우(憂),비(悲)	공(恐)
오성(五聲)	부름[呼]	웃음[笑]	노래[歌]	곡[哭]	신음[呻]
오미(五味)	신맛[酸]	쓴맛[苦]	단맛[甘]	매운맛[辛]	짠맛[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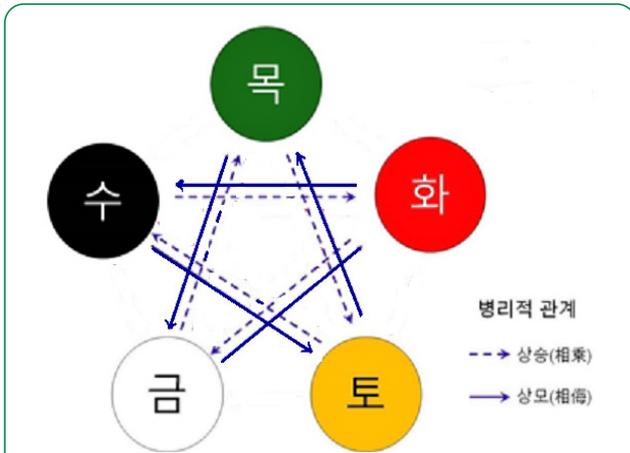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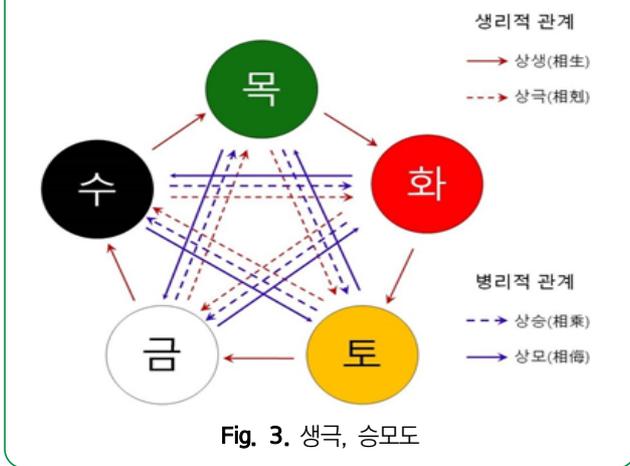


Fig. 2. Conceptual diagram for over-acting and counter-action



① 수극화(水剋火)-수승화(水乘火)-수모토(水侮土): 정상 생리관계에서는 수극화(水剋火)이나 신장에 병이 발생하여 오래 되면 신장의 기운이 병적으로 커진다. 이때 신장이 지나치게 심(心)을 눌러서 신장의 병이 심에 영향을 미치는 상승(相乘) 현상인 수승화(水乘火)가 발생하고, 동시에 상모현상이 발생하여 토극수(土剋水)가 거꾸로 수극토(水剋土)가 되어 수모토(水侮土)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신장병이 비(脾)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행표에서 신장, 부신→수에, 심은→火, 비, 위는→토에 귀속).

【수승화(水乘火)】

생리적-정상: 水→剋→火
병리적-질병: 水→乘→火

(질환 예)

부신항진증(hyperadrenocorticism, 副腎皮質機能亢進症)에 의한 심기능저하: 부신항진증의 합병증으로서 고혈압, 심부

전 등이 올 수 있다.

【수모토(水侮土)】

생리적-정상: 土→剋→水
병리적-질병: 水→剋→土, 水→侮→土

(질환 예)

① 신허오경설사(腎虛五更泄瀉): 신의 찬기운이 넘쳐 비장의 따뜻함을 방해해 오경(새벽)설사를 한다.

(참고)

비장은 수곡을 소화시켜 얻어진 영양물질을 온 몸으로 운송하고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기가 약해지면 아래로 흐르면서 설사를 한다. 이를 변당(便瀉)이라 하는데 과도한 성생활등으로 신이 허해지면 신허오경설사를 한다.

- ① 부신항진증이 진행 되면 합병증의 하나로 비장종대가 올 수 있다.
- ② 부신항진증에 의한 인슐린저항성의 증가: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므로 인슐린저항성은 커다란 의미에서 췌장의 기능저하로 본다(한의학의 비장은 췌장과 비장을 포함한다.)
- ③ 사상체질에서는 비허신실(脾虛腎實) 체질이 소음인데, 신장기능이 항진되어 비장기능이 저하된 체질을 말한다.

*腎 영양제: 비타민E, 미네랄, 오메가3(적혈구의 변형능을 올려 좁은 혈관을 유연하게 통과하므로 모세혈관이 많은 신장의 기능을 올려줌), 오메가6, 짠 맛 음식(나트륨만 있는 정화된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 함유), 블랙푸드, 아연(인체 70%를 차지하는 수분의 육각형을 유지)

② 화극금(火剋金)-화승금(火乘金)-화모수(火侮水): 정상 생리적인 관계에서는 화극금(火剋金)이나 심에 병이 발생하여 오래 되면 심의 기운이 병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때 심이 지나치게 폐를 눌러서 심의 병이 폐에 영향을 미치는 상승(相乘)현상이 발생한다. 즉, 심장의 활동이 병적으로 항진되면 심장에 허열(虛熱)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식히기 위해 폐의 기능은 약해진다. 또 동시에 상모현상이 발생하여 수극화(水剋火)가 거꾸로 화극수(火剋水)가 되어 화모수(火侮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심병이 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행표에서 심장, 소장은→화에 폐, 대장은→수에 귀속).

【 화승금(火乘金) 】

생리적-정상: 火→剋→金

병리적-질병: 火→乘→金

(질환 예)

- ㉠ 심장의 열이 심해져 폐를 치면 폐의 진액이 소모되고, 음허(陰虛)가 심해져서 폐결핵이 생긴다(원래 폐의 온도는 심장의 열을 식히기 위해 심장보다 5도 정도 낮으나 폐의 진액이 소모되면 폐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며 폐결핵이 생긴다).
- ㉡ 심장에 열이 생기면 장부관계인 소장으로 열이 전변되어 복부에 동계가 생기고 입술과 혀가 헐게 되는데, 이 열이 폐와 대장의 이상을 가져온다.
- ㉢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적으로 心火가 생기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발생할 수 있다. COPD환자는 흔히 스트레스성 울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장열을 꺼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 ㉣ 다한증(hyperhidrosis): 오행표에서 피부는 폐와 함께 金에 귀속되는데 심열이 강해지면 폐가 약해져서 피부의 모공이 열리게 된다. 이때 피부호흡을 통해 심열이 발산되어 땀을 흘리면 심열이 내려가게 된다. 손바닥도 심열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해도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 ㉤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보면 심열이 많은 태음인이 스트레스, 피로 등에 의해 폐질환이 많이 온다.

【 화모수(火侮水) 】

생리적-정상: 水→剋→火

병리적-질병: 火→侮→水, 火→乘→水

(질환 예)

- ㉠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허열(虛熱)에 의한 부신저하
- ㉡ 신음(腎陰)과 심양(心陽)은 서로 도우면서 제약하여 생리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성적인 심병으로 신이 약해지게 되면 심신불교(心腎不交)가 되어 신음과 심양의 생리적 관계가 무너져 다음의 증세가 생긴다. 이를 음허화동(陰虛火動) 이라고도 한다.
 - 심계(心悸)증세로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
 - 심번(心煩)으로 가슴이 번거롭다.
 - 불면 또는 숙면을 못해 다몽을 하게 된다.
 - 조루나 몽정, 유정(遺精)이 나타나고 성기능이 저하된다.
 - 손발이 화끈되어 이불속에 손발을 넣고 잘 수 없게 된다.

- 입이 마르고 입안이 헐고 혀바늘이 돋는다.
-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 되거나 귀에서 웅웅거린다.
- 淸心蓮子飲, 天王補心丹 등이 사용된다.

*心영양제: 코엔자임-혈관을 맑게 하는 항산화제, 오메가3, 홍국, 나토키나제, 쓴 맛 음식, 커피

㉢ 금극목(金剋木)-금승목(金乘木)-금모화(金侮火): 정상 생리적인 관계에서는 금극목(金剋木)이나 폐에 병이 발생하여 오래 되면 폐의 기운이 병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때 폐가 지나치게 간을 눌러서 폐의 병이 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승(相乘)현상이 발생하고, 동시에 상모현상이 발생하여 화극금(火剋金)이 거꾸로 금극화(金剋火)가 되어 금모화(金侮火)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폐병이 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금승목(金乘木) 】

생리적-정상: 金→剋→木

병리적-질병: 金→乘→木

(질환 예)

- ㉠ 간의 소설(疏泄)기능이 폐의 숙강(肅降)작용에 지나치게 억제되어 간기울결이 심해진다.

(참고)

*간의 소설(疏泄)기능: 소(疏)는 소통을 설(泄)은 발설(發泄), 승발(昇發)을 의미한다. 즉, 에너지를 순조롭게 전신에 골고루 잘 퍼지게 하는 의미이다. 나무처럼 곧고,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뻗어 쪽 퍼져나가는 이미지가 간의 소설 기능이다. 다른 의미에서는 소(疎-올려줌), 설(泄-내려줌)→올려줄 것 올려주고 내릴 것 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기운이 잘 뻗어 나가고 있는 뜻이다. 이런 상태의 간은 우리 몸속이 氣나 血등을 잘 돌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잘하게 되고, 따라서 인체의 기능들이 원활한 상태를 유지한다. 현대의 자율신경작용과 원활한 순환(문맥순환, 소장흡수, 담즙배설 등)이다.

*숙강(肅降)작용: 숙은 청숙의 줄임말로 “맑게한다”라는 의미이고 강은 하강의 줄임말로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다. 이는 맑고 깨끗한 자연계의 청기(淸氣)를 흡입하고, 비(脾)에서 운반된 진액과 수곡정미를 아래로 퍼져 나가게 한다. 그리고 폐와 호흡기도의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해준다. 숙강기능이 안 좋으면 폐기

가 맑지 않고 내려가지 못하므로 호흡이 짧아지고 얇아져 호흡곤란, 기침과 가래가 생기고 각혈(咯血)을 일으키고, 천식 등이 생긴다.

*간기울결(肝氣鬱結): 사람은 누구나 종종 감정과 생각 때문에 내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화를 내거나, 생각이 많거나, 슬픔에 빠지면 간기가 울결된다. 증상은, 양 옆구리가 빠근하면서 아랫배가 아프고 토하거나 구역질을 하고 식욕이 없다. 월경불순이 있고 젓가슴이 부어오르면서 아프다. 우울하고 쉽게 노여움을 타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쉰다.

【금모화(金侮火)】

생리적-정상: 火→剋→金

병리적-질병: 金→剋→火, 金→侮→火

(질환 예)

㉠ 폐의 담(痰)이 심궤(心竅)를 막아 횡설수설, 정신착란이 있으며 열이 빠져 눈이 멍하고, 심하면 담의 열기가 요란해져서 발작하거나 졸도하여 인사불성이 되며,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동의보감).

㉡ 인체의 혈액 소순환을 통하여 심장의 열은 폐를 거치는 동안 식게 되는데 폐병이 심해지면 심장의 열이 소순환에 의해 식지 않으므로 심열이 심해지면 관상동맥의 혈관이 굳어지고 관상동맥에 지질이 생겨 협심증으로 진전된다. 우리 몸의 일부분에 열이 생기면 지질이 생기고 순환장애가 생긴다.

*폐영양제: 비타민A, D, K (지용성 비타민은 글루텐을 미끄러지게 해서 장을 보호하기도 한다.), 아미노산, 유산균, 매운맛의 음식

㉣ 목극토(木剋土)-목승토(木乘土)-목모금(木侮金): 정상 생리적인 관계에서는 목극토이나 간에 병이 발생하여 오래 되면 간의 기운이 병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때 간이 지나치게 비를 늘려서 간의 병이 비에 영향을 미치는 상승(相乘)현상이 발생하고, 동시에 상모현상이 발생하여 금극목(金剋木)이 거꾸로 목극금(木剋金)이 되어 목모금(木侮金)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간병이 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목승토(木乘土)】

생리적-정상: 木→剋→土

병리적-질병: 木→乘→土

(질환 예)

㉠ 간기울결이 심하여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아픈 증상이 일어날 때, 위에서는 메스꺼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산 과다가 생기고 비(脾)에서는 변당(便瀉: 대변이 묽게 나오는 증상)이 나타난다.

㉡ 간 기능이 나빠지면 췌장기능도 떨어져 당뇨가 생긴다.

㉢ 간기울결이 심하면 소화기관들의 근육(근육은 오행표에서 간에 배속됨)이 경직되어 복통이 오게 된다. 아이들이 자주 배가 아파 학교에 안가는 등 병치레를 하는 것은 목승토이다. 어른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가를 즐기거나 취미생활, 음주, 대화 등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노력하나 아이들은 아직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르기에 그것이 간기울결이 되어 복통으로 나타나 ‘엄마 배아파’가 되는 것이다.

㉣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장기는 간인데 자주怒(오행표에서 木에 귀속되는 감정)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위염, 위궤양을 앓는다(요즘 일부 병원에서는 만성위염에 신경 안정제를 함께 처방하기도 한다).

- 간기울결은 柴胡劑, 사역산등이 효과가 있다.

【목모금(木侮金)】

생리적-정상: 金→剋→木

병리적-질병: 木→剋→金, 木→侮→金

(질환 예)

㉠ 간화(肝火)가 왕성하면 가슴이 아프고, 입이 쓰고, 화를 자주 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는 폐의 진액이 마르고 폐기가 떨어져 기침, 농축된 가래, 해수 천식 등이 발생한다.

㉡ 피부는 金에 배속되므로 간의 열이 심해지면 간의 열이 피부로 발산되어 무좀, 아토피, 건선 등의 피부병이 심해진다. 따라서 자꾸 재발되거나 난치성 피부 치료는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 코와 기관지는 金에 배속 되는데 간화가 심해지면 비염, 기침, 천식 등의 증세가 심해진다.

㉣ 현대인들이 매운맛(金에 배속됨)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간양상항을 폐의 숙강으로 누르기 위해 폐의 기운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행동이다.

㉤ 사상체질에서는 폐허간실(肺虛肝實) 체질이 태음인이라고 하는데, 간의 기능이 항진 되어 폐의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체질을 말한다.

(참고)

*간화(肝火): 간의 울화(鬱火), 간에 대한 스트레스증상으로 보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화를 자주 내는 것, 체질과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 신체의 피로누적, 수면 부족, 인스턴트식품 과다섭취, 약물의 과다복용, 밤에 일하는 것, 과도한 신경소모, 간접적인 환경호르몬 섭취, 과도한 업무, 과도한 음주

*간양상항(肝陽上亢): 간기울결이 진행되거나 水生木이 안되어 간음(肝陰)이 부족한 경우 간양이 항진되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귀가 울리며 얼굴과 눈이 붉어진다.

*간영양제: 비타민C, 실리마린, 오메가3, 루테인, 스피루리나, 녹색잎 혼합, 효소제, 신맛의 음식, 마그네슘(근육 이완), 녹색의 야채

⑤ 토극수(土剋水)-토승수(土乘水)-토모목(土侮木): 정상 생리적인 관계에서는 토극수(土剋水)이나 비에 병이 발생하여 오래 되면 비의 기운이 병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때 비가 지나치게 신을 눌러서 비의 병이 신에 영향을 미치는 상승(相乘)현상이 발생하고, 동시에 상모현상이 발생하여 목극토(木剋土)가 거꾸로 토극목(土剋木)이 되어 토모목(土侮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비의 병이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승수(土乘水)】

생리적-정상: 土→剋→水
병리적-질병: 土→乘→水

(질환 예)

- ㉠ 비오습(脾惡濕)에서 비가 싫어하는 습병이 신장으로 전변(傳變)되면 소변, 대변에 문제가 생긴다. 뇨실금, 소변삭(小便數), 변비, 변당이 온다.
- ㉡ 비위에 열이 생기게 하는 음식이나 행위(지나친 단음식, 과식, 야식, 불규칙적인 식사 등)가 지속되면 비위의 열이 신을 눌러서 골다공증, 신장성 고혈압, 요통 등이 유발된다.
- ㉢ 과식: 성욕감퇴, 정력감퇴
- ㉣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나 인스턴트식품 등 잘못된 먹거리 선택에 의한 부신저하, 면역저하
- ㉤ H₂저해제, PPI제제: 위열을 높여 신기능저하, 발기부전
- ㉥ 인슐린저항성이 당뇨병난소증후군을 유발한다.

- ㉦ 내당능장애, 인슐린저항성에 의한 부신기능저하증
- ㉧ 고인슐린혈증(hyperinsulinemia)이 지속되면 과분비된 인슐린은 신장에서 염분재흡수를 촉진하여 혈장량을 증가시키고, 세포막 Na-K-ATP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내 Ca²⁺ ion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서 고혈압을 유발, 악화시킨다.
- ㉨ 밤에 야식을 하는 것도 비장의 병적기능을 증대시킨다. 야식을 먹고 잠을 자면 인체가 음식을 소화흡수하는데 호르몬을 쓰게 되므로 자면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이 적게 된다. 성장하는 것은 오행표에서 水에 배당되므로 토승수가 되는 것이다.

(참고)

*비오습(脾惡濕)

오장소오(五臟所惡)는 오장을 손상시키기 쉽기 때문에 오장이 싫어하는 사기(邪氣)이다. 이중에 비오습(脾惡濕)의 의미는 脾가 중초(中焦)에 속하고 수습(水濕)을 운화(運化)하는 장기인데 습이 성하면 쉽게 비양(脾陽)을 상하여 운화기능이 장애되면서 설사하기에 비(脾)는 습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토모목(土侮木)】

생리적-정상: 木→剋→土
병리적-질병: 土→剋→木, 土→侮→木

(질환 예)

- ㉠ 비장의 습이 간의 소설기능을 막아서 간기울결이 온다.
- ㉡ 폭식하거나 나쁜 음식을 섭취하여 비위가 약해지면 간기능저하가 나타난다.

*脾영양제: 비타민B, 효소(대사효소는 소화효소를 보충), 단 맛 음식(노인은 비위가 약해져 사탕을 즐겨 먹는다.)

결론

위 내용을 종합하면 오행론에서 비정상적, 병리적 관계인 상승(相乘), 상모(相侮)관계를 현대의학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에 응용하여 아래와 같이 치료원칙을 제시하였다. 5개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원칙은 여타 만성질환이나 암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으며 각 장기의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한약방제나 기능성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 등으로 개별 약사의 이해와 능력에 따라

다양한 환자에게 응용할 수 있다.

1. 부신저하

부신은 오행표에서 水에 배속된다. 그러므로 토극수(土剋水)에서 질병이 발생된 토승수(土乘水)의 치료와 수극화(水剋火)에서 질병이 발생된 화모수(火侮水)를 치료원칙으로 한다.

- 1) 본장(本臟)의 치료- 신(腎)을 보(補)한다.
- 2) 토극수(土剋水)에서 병리적 상태인 토승수(土乘水)의 치료
 - 지나치게 신을 누르고 있는 비위의 병을 다스린다.
 - 비위장 기능의 정상화
- 3) 수극화(水剋火)에서 병리적 상태인 화모수(火侮水) 치료
 - 병적으로 향진된 심화(心火)의 기운을 내려준다.

2. 당뇨병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과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 췌장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당뇨는 土에 배속된 비위의 기능저하로 보고 치료한다.

- 1) 본장(本臟)의 치료 -비장(脾)을 보(補)한다.
- 2) 목극토(木剋土)에서 병리적 상태인 목승토(木乘土) 치료
 - 지나치게 비위를 누르고 있는 간의 병을 다스린다.
 - 병적으로 향진된 간에서 내인성 포도당의 증가
- 3) 토극수(土剋水)에서 병리적 상태인 수모토(水侮土) 치료
 - 신의 병이 향진되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을 다스린다.
 - 향진된 부신기능의 정상화

3. 고혈압

고혈압은 신(腎)의 기능이 떨어지면 발생하게 되는데, 신은 오행표에서 水에 배속된다.

- 1) 본장(本臟)의 치료- 신(腎)을 보(補)한다.
- 2) 토극수(土剋水)에서 병리적 상태인 토승수(土乘水) 치료
 - 지나치게 신을 누르고 있는 비위의 병을 다스린다.
 - 비위장 기능의 정상화
- 3) 수극화(水剋火)에서 병리적 상태인 화모수(火侮水) 치료

- 심(心)병이 향진되어 신에 영향을 미치므로 심화(心火)를 다스린다.

4. 위장병

비장과 위장은 오행표에서 土에 배속된다.

- 1) 본장(本臟)의 치료-비위(脾胃)를 보(補)한다.
- 2) 목극토(木剋土)에서 병리적 상태인 목승토(木乘土) 치료
 - 지나치게 비위를 누르고 있는 간의 병을 다스린다.
 - 간장 기능의 정상화
- 3) 토극수(土剋水)에서 병리적 상태인 수모토(水侮土) 치료
 - 신병이 향진되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병을 다스린다.

5. 간질환

간은 오행표에서 木에 배속된다.

- 1) 본장(本臟)의 치료-간(肝)을 보(補)한다.
- 2) 금극목(金剋木)에서 병리적 상태인 금승목(金乘木) 치료
 - 지나치게 간을 누르고 있는 폐의 병을 다스린다.
 - 폐장 기능의 정상화
- 3) 목극토(木剋土)에서 병리적 상태인 토모목(土侮木) 치료
 - 비위의 병이 향진되어 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위의 병을 다스린다.
 - 비위장 기능의 정상화

참고문헌

- 1) 동의보감. 1590년~1610년 편찬. 1613년 허준 출판.
- 2) 황제내경. B.C. 722년~221년경. 필자 미상.
- 3) 동의수세보원. 1894년 이제마 출판.
- 4) 동서의학원론. (주)온누리건강 김창욱. 1996년.
- 5) 기초한의학. 배병철, 성보사. 1991.
- 6) 현대의료와 한방약. 타니 다타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 7) 네이버 카페. 체질나라.
- 8) Blog. naver.com/duckhee2979 (Accessed on April 2017).
- 9) 옵티마케어. edu.optimacare.co.kr (Accessed on April 2017).
- 10) bct.pe.kr/220125056402 (Accessed on April 2017).